

글로벌증시, 금융위기 이후 균형 되찾아..中 강세에 '일희일비' 경계 해야

BCG, 2014 글로벌 주식시장 조사결과 발표

[SEOUL] March, 13, 2015—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12일(미국 동부시간) 글로벌 증권시장 보고서 '느리지만 여전히 강력하다'(Equity Markets: Slowing but still strong)를 발표하고 글로벌 증시가 금융 위기 이후 균형을 되찾았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초강세 흐름을 보인 중국 증시에 지나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CG는 5년간 TSR(Total Shareholder Return, 총주주이익) 평균을 기준으로 상장기업을 분석하는 가치창출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4년 글로벌 증권시장에 대한 분석이다.

글로벌 증시, 금융위기 이후 균형 되찾아

BCG가 주요 44개국의 2014년 TSR과 과거 3년(2011년~2013년)간 증시흐름을 조사한 결과 각국의 증시는 이전 3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다시 말해 세계 증시를 이끌며 좋은 성과를 냈던 국가들이 작년에도 여전히 시장을 리드했고,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뒤쳐졌다. 이는 저성장, 저금리 상황의 금융위기 이후 불안정했던 글로벌 증시가 점차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 지난해 경제성장이 주춤했던 일본은 이 같은 흐름에서 예외다.

이머징 마켓 여전히 강세.. 중국보다 꾸준히 성장한 두바이 등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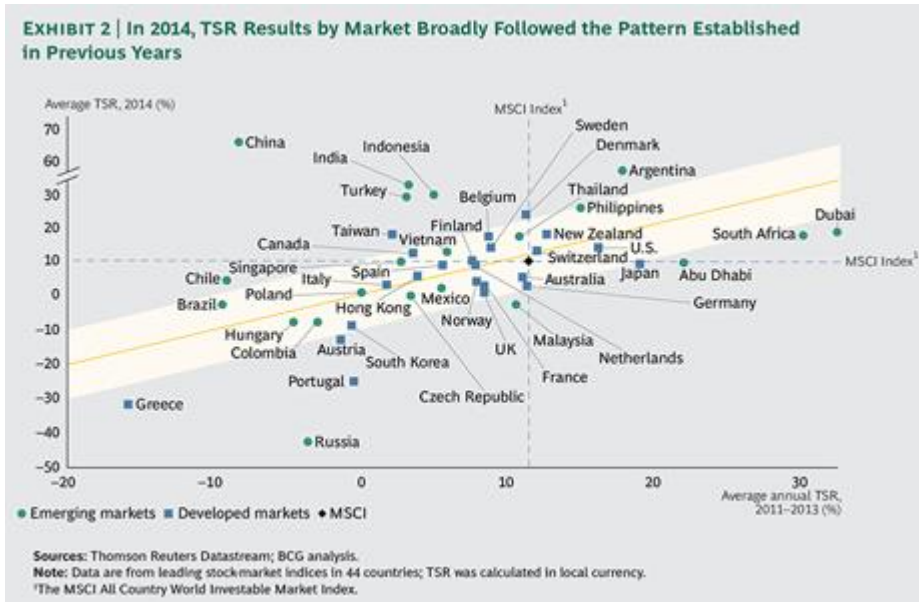
지난해 중국의 TSR은 67%로 조사대상 국가 중 최고 성과였다. 하지만 2013년 중국 증시가 유독 부진(TSR -12%)했던 데 따른 반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와 같은 강세 흐름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선불리 판단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BCG는 이머징 마켓 내에서 중국보다는 아르헨티나, 필리핀, 아부다비, 두바이 증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꼽았다. 이는 과거 3년(2011~2013년) TSR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들 증시가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증시는 과거 3년과 2014년 모두 10% 이상의 TSR을 달성했다. (아래 그림 참조)

보도자료 문의
PR Agency 브이콤 이윤정
Tel. 02.2015.2232

한편, 한국 증시(-9%)는 조사대상 선진국 23 개국 중 20 위로 하위권에 속했다. 한국은 2013 년에도 0% TSR 을 기록하며 선진국 증시 중 최하위 성적을 낸 바 있다. 그럼에도 국내 기업 컴투스는 시가총액 10 억 달러 이상 TSR 상위 10 개 기업 중 8 위에 올랐다. BCG 는 2014 년 말 기준 시가총액 10 억 달러 이상 6300 개 기업의 TSR 을 분석해 10 개 기업을 선정했고, 이 중 국내 기업으로는 컴투스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BCG 시카고 오피스 게리 한셀(Gerry Hansell) 시니어 파트너는 “작년 한 해 결과만을 두고 올해 주식시장을 속단할 수는 없지만 글로벌 증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1 년부터 3 년간 두각을 보인 일본이 지난해 유독 부진했듯이 시시각각 변하는 주식 시장 흐름을 인지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 혁신적인 가치창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조] 2014 년 연평균 TSR, 과거 3 년(2011~2013 년)과 유사한 양상 보여



About The Boston Consulting Group

The Boston Consulting Group (BCG) is a global management consulting firm and the world’s leading advisor on business strategy. We partner with clients from the private, public, and not-for-profit sectors in all regions to identify their highest-value opportunities, address their most critical challenges, and transform their

보도자료 문의
PR Agency 브이콤 이윤정
 Tel. 02.2015.2232



enterprises. Our customized approach combines deep insight into the dynamics of companies and markets with close collaboration at all levels of the client organization. This ensures that our clients achieve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build more capable organizations, and secure lasting results. Founded in 1963, BCG is a private company with 81 offices in 45 countrie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bcg.com.

About bcgperspectives.com

[Bcgperspectives.com](http://bcgperspectives.com) features the latest thinking from BCG experts as well as from CEOs, academics, and other leaders. It covers issues at the top of senior management’s agenda. It also provides unprecedented access to BCG’s extensive archive of thought leadership stretching back 50 years to the days of Bruce Henderson, the firm’s founder and one of the architects of modern management consulting. All of our content—including videos, podcasts, commentaries, and reports—can be accessed by [PC](#), mobile, [iPad](#), [Facebook](#), [Twitter](#) and [LinkedIn](#).

###

보도자료 문의
PR Agency 브이콤 이윤정
Tel. 02.2015.2232